

임진왜란 시기 부산포의 위상과 해전

김 강 식*

| 목 차 |

- I. 머리말
- II. 임진왜란 시기 부산포의 위상
- III. 부산포해전의 전개
- IV. 부산포해전의 결과
- V. 부산포해전의 의의
- VI. 맺음말

| 국문초록 |

임진왜란 시기에 부산진성전투와 부산포해전이 전개되었던 釜山浦는 임진왜란 전부터 경상좌도 수군의 본영으로서 해상 방어의 중심지였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입장에서 부산포는 조선에서 일본군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본국과의 연락을 위한 운송 거점으로서 중요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 첫 전투였던 釜山鎭城을 침략하여 점령하였다. 이후 일본군은 순차적으로 부산포로 상륙하여 한성으로 진격하였지만, 전선이 확대되자 일본 본국과의 연락 기지이자 병참 거점으로서 부산포를 적극적으로 장악할 필요성이 있었다.

1592년 9월 1일 전개되었던 부산포해전은 부산포 일대가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인문학국교수 / ks1592@hanmail.net

군의 교두보와 병참 기지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일본군의 근거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투였다. 때문에 이순신의 조선 수군 연합함대는 해양이 아니라 포구 안의 적진으로 직접 뛰어들어 전투를 수행하는 위험을 감수하였다. 부산포해전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두 수군들이 연합하여 대승을 거둔 전투로서 임진왜란 시기의 전세를 바뀌게 할 만큼 획기적인 승리였다. 부산포해전의 패배 이후 일본군의 수군은 서해로의 진출이 불가능해졌으며, 동시에 육군의 진출도 어렵게 되었다. 이후 일본군은 한반도 남단에 고립되면서 강화회담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조선에서는 일본군의 군량 공급지와 보급지를 공략하여 승리함으로써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부산포해전은 임진왜란 시기의 여러 해전 중에서 일본 전선을 많이 쳐부순 대첩 중의 하나였으며, 일본 수군의 기동력을 약화시켜 전쟁사 전체의 흐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전투였다. 이에 부산포해전은 임진왜란 4대 해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후대에 군수전에서의 승리 때문에 부산포대첩으로 평가 받기도 하였다.

주제어: 임진왜란, 부산포, 부산진성전투, 부산포해전, 군수전

I. 머리말

조선 건국 후부터 釜山浦는 나라의 관문이었으며,¹⁾ 경상도 수군의 요충이었다.²⁾ 부산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일본이 일으킨 임진왜란의 발발과 함께 일본군과의 첫 전투지가 되어 戰禍를 처음으로 당하였다. 때문에 임진왜란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하였다.³⁾

1) 조선시기에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 삼포를 개항한 이후 사랑진왜변 이후부터는 부산이 대일교역의 유일한 창구가 되었다(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 샘, 1994).

2) 김강식, 『조선시대 해항도시 부산의 모습』, 선인, 2018.

3) 김석희, 「임진왜란과 부산항전」, 『향도부산』 10, 1992. 정중환, 「일본기록에서 본 임진왜란」, 『향도부산』 3, 1963.

부산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은 조선 침략의 교두보이자 보급을 위한 전략 거점으로서 중요하였다. 특히 부산의 해안 중에서도 부산포는 일본군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병참 기지였다. 반면에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군의 격퇴와 종전을 위해서는 부산포를 통한 일본군의 상륙, 본국과의 연락, 군량의 수송 등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다. 임진왜란 초기에⁴⁾ 부산진성이 4월 14일 바로 일본군의 수중으로 넘어갔지만,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군의 전력 약화와 조선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부산포의 확보 내지는 타격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처럼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군의 부산포 사수와 조선군의 부산포 탈환이라는 필요성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전투가 부산포해전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진성전투와 부산포해전은 전쟁 초기에 동일한 성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투였다.

지금까지 부산포해전에 대한 연구성과는 임진왜란 전쟁사에서 차지하는 커다란 의미에도 불구하고 많은 편이 아니다. 부산포해전에 대한 연구는 임진왜란사 전체의 흐름 속에서 부산포해전을 다룬 경우,⁵⁾ 다음으로 임진왜란 시기의 해전사를 다루면서 부산포해전을 구체적으로 다룬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⁶⁾

본고에서는 기존의 부산포해전에 대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임진왜란 시기에 부산포의 군사적 중요성과 전쟁사적인 의의에 초점을 두고, 부산진성전투와 부산포해전을 연속선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

4) 광의의 임진왜란 7년 전쟁은 임진왜란 기, 강화회담기, 정유재란기로 나눌 수 있다.

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 1987. 이형석, 『임진왜란사』 상중하, 신현실사, 1976. 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 海と空社, 1942.

6) 해군본부 정훈감실, 『한국해전사』, 1964. 김중기, 「부산포해전」,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군사연구실, 1993.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정진술, 「부산포해전」, 『해양과 이슈-부산, 아치섬 그리고 해양문화-』, 전망, 2004.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의 부산포해전과 의미」, 『역사와 세계』 30, 2006. 임원빈, 「병법의 관점에서 본 부산포 해전」, 『이순신연구논총』 25, 2016.

가 부산포해전의 실상을 임진왜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부산포해전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 임진왜란 시기 부산포의 위상

1. 경상도 수군 본부

조선 전기에 조선의 지방군은 鎭管體制로 편성되어 있었다. 조선 전기의 진관체제는 世祖 연간에 정비되었는데, 경상도의 경우 내륙과 연해 지역이 확연히 구분되었다. 진관체제는 전국을 방어 지역화 한 것이었다. 진관체제의 특징은 군사방어 조직이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즉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방어체계가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설정되면서 조선 전기에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역사적 의의는 크다.⁷⁾ 수군의 경우 경상도는 좌수영과 우수영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에는 부산포진관과 제포진관이 있었다.⁸⁾ 지역방위를 중시하였던 진관체제 아래에서 경상좌도에 속한 부산 지역에는 좌수영이 동래에 있었으며, 부산포는 부산포진관에 속하였다.⁹⁾

그런데 임진왜란 직전에 전국의 방어체제는 군사수의 부족 때문에 진관체제에서 乙卯倭變 이후 制勝方略體制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수군의 경우 이에 앞서 중종 연간에 경상도의 수군 진관을 개편하여 수군을 강화하였다. 즉 경상도 수군에서는 왜구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진관에 변화가 생겼다.

7) 김강식,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혜안, 2001, 49~52쪽.

8)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의 부산포해전과 의미」, 『역사와 세계』 30, 2006, 597쪽.

9) 육군본부, 『한국군제사』 근세 조선전기 편, 1968, 140쪽.

<표 1> 중종 연간 경상도 수군 진관의 개편¹⁰⁾

부산포진관	서생포, 두모포, 개운포(신설), 포이포, 서평포(신설), 다대포
미조항진관(중종 17년)	평산포, 영등포, 사랑, 당포, 적량
가덕진관(중종 39년)	천성포(신설), 가배랑(신설), 옥포, 지세포, 조라포, 안골포

이에 부산포진관 아래의 몇 개의 포영이 없어졌지만, 부산의 좌익에 가덕도진관이 신설되었으며,¹¹⁾ 부산포진관은 倭人을 접대하는 곳이어서 당상관을 차출하여 보냈다.¹²⁾ 그리고 다대포는 큰 진이므로 군사 100명과 군관 3인을 더해 주도록 조치하여서¹³⁾ 경상도 해안의 방비를 강화시켰다. 이후에도 조선 왕조는 계속 海防에 힘을 기울였는데, 명종대에는 부산포진관 관할의 울산 서생포 등을 萬戶와 함께 정4품으로 승격시키고 동침절제사라 하였다.

그러나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의 침략이 있자, 경상도의 해안 방비를 책임지고 있던 경상좌수사 朴泓이 부산진성이 함락되자, 狀啓를 올린 다음 언양 쪽으로 도망해 버렸다는 점이다.¹⁴⁾ 또 경상우수사 元均도 먼저 상륙한 적의 기세가 큰 것을 보고서는 적의 기세에 놀려 출격도 하지 않고, 전함 100여 척과 火砲·軍器를 모두 해중에 격침시켜 버리고, 脾將 李英男·李雲龍 등과 4척의 전함에 나누어 타고는 곤양 海口로 도망해서 육지에 내려 적을 피하고자 했다.¹⁵⁾ 이에 수군 10,000여 명이 해산되고 말았다.¹⁶⁾ 이처럼 부산포 관할과 인근의 경상좌·우도 수사들

10) 육군본부, 위의 책, 1968, 185쪽.

11) 『중종실록』 권104, 39년 9월 12일.

12) 『중종실록』 권104, 39년 9월 28일.

13) 『중종실록』 권104, 39년 9월 28일.

14) 『懲毖錄』 권1, 狀啓; 『燃藜室記述』 권1.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4월 17일조.

15) 김강식, 앞의 논문, 2006, 598쪽.

16) 『懲毖錄』 권1. 하지만 원균은 임진왜란 초기에 해전을 감행하여 일본 전선 10여 척,

이 임진왜란 초기에 도망 내지 패주함으로써 남해안 최남단의 수군 방어선은 수군 자체적으로 방어다운 방어를 하지도 못하고, 적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말았다.¹⁷⁾

이렇게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 수군이 스스로 무너진 것은 일본군의 상륙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부산 해역에서는 관할의 경상좌수사 박홍이 관할 해역을 벗어나 버려서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못 치르고 말았다. 이 점은 일본군이 부산 점령 이후 기장 등을 거치면서 진격하고, 좌수사 관할의 해역을 마음대로 활동하면서 이용하는 요인이 되었다. 元均은 전쟁 초기에 비록 도망하였지만, 관할 해역 자체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군의 요청과 수군의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남해안 지역에서 전투를 치를 수 있었던 것과는 확연하게 대비된다고¹⁸⁾ 할 것이다.

2. 일본군의 거점 확보

임진왜란 시기의 부산포해전과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산포가 일본군에 장악되었던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임진왜란 첫 전투였던 부산진성전투를 통해서 일본군이 부산포를 장악하였으며, 일본군은 계속해서 부산포를 점령하여 사용하면서 침략 거점 내지 병참 기지로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조선은 부산포를 점령당함으로써 일본군에게 교두보를 허용하게 되어 일본군의 이어진 상륙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1592년(선조 25) 4월 13일 오후 5시경 적장 小西行長이 이끄는 조선 침략 선봉군 제1군은 700여 척의 병선으로 부산포를 습격해 왔다.¹⁹⁾

혹은 24척을 분별하였다고도 한다(『이충무공전서』권2, 狀啓, 赴援慶尙道狀二).

17) 김강식, 앞의 논문, 2006, 598쪽.

18) 김강식, 앞의 논문, 2006, 598쪽.

이때 황령산봉화대에서는 즉시 한성으로 일본군의 침략을 보고하였다.²⁰⁾ 당시 부산진첨사는 鄭撥이었다.²¹⁾ 이렇게 임진왜란의 첫 전투는 부산진성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오늘 巳時에 도착한 가덕진 첨절제사 田應麟과 천성보 만호 黃斑 등의 첩보에 의하면, 응봉 監考 李澄과 연대 감고 徐建 등의 進告에 오늘 4월 13일 申時에 왜선이 몇 십 척인지 알 수 없으나, 대개 90여 척이 대마도에서 경상좌도 柵伊島를 지나 부산포로 향하고 있는데, 멀고 어두워서 척수를 상세히 헤아릴 수 없으나 연속으로 오고 있다.²²⁾

일본군은 4월 12일 辰刻에 대마도의 大浦를 출발하여 申尾에 부산진성에 도달하였다고²³⁾ 한다. 이날 일본군은 바로 상륙하지 않고 絶影島 전방에서 임시 정박하고 공격은 개시하지 않았다. 다만 일몰쯤 제1군 小西行長の 막료인 對馬島 島主 宗義智가 약간의 군사를 이끌고 상륙하여 부산진성 부근의 경계 상황을 직접 살피고, 선단으로 돌아가 부산진성의 방비가 엄중함을 小西行長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13일 밤을 배 위

19) 부산진성전투에 관한 기록은 『忠烈祠志』가 기본 사료이다. 『忠烈祠志』는 동래 충열사의 安樂書院에 합사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기록으로 英祖 34년(1767) 부사 嚴璘壽가 편찬하고, 간행은 純祖 8년(1808) 吳翰源 부사 때 이루어진 책이다(김강식, 앞의 논문, 2006, 595쪽).

20) 일본군의 침략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한성으로 봉수를 올린 곳은 경상우도 加德鎭 鴈峰 봉수대였다고도 한다(李舜臣, 『壬辰狀草』).

21) 鄭撥의 당일 행동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絶影島에 사냥 갔다가 적선이 당도함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성내로 들어갔다고 하고, 또 다른 설은 일단 바다에 내려가 且戰且退하였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籠城作戰을 벌렸다고 한다.

22) 『壬辰狀草』 因倭警待變狀 一, 萬曆 20년 4월 15일 戌時啓本.

23) 天荊, 『西征日記』 권1, 天正 20년 壬辰, 676~676쪽. 『續々西類從』 제3집 中傳部에 실린 것을 이용하였다. 한편 『壬辰狀草』 因倭警待變狀 二에서는 4월 13일 申時, 『吉野日記』에서는 12일로 기록하고 있다.

에서 보낸 일본군은 14일 아침에 해안으로 상륙하여 攻城 준비를 갖추면서 假道를 요구하는 글을 木板에 써서 성 밖에 세웠다. 첨사 鄭撥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성의 방비에 힘을 다하였다.

임진왜란 때 부산진성은 경상도 해안에 설치된 水軍僉節制使의 진영인 부산포진, 다대포진, 가덕진, 미조항진 등 4개 진 가운데 경상도 제1의 해상관문으로서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요충이었다.²⁴⁾ 부산진첨사 정발은 부임한 후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하여 성곽을 보수하는 등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그래서 부산진성은 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중요한 성으로서 비교적 견고하였다. 이런 사실은 耶蘇會의 선교사가 쓴 『日本西敎史』에서 ‘海濱에서 성에 이르는 사이에는 방어를 목적으로 말뚝을 쳐놓고 있으며, 성벽 주위에는 塹濠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또 『吉野日記』에는 ‘성은 이중삼중으로 城址를 둘러놓고, 또 半弓 등의 도구도 구비하고 있었다.’고²⁵⁾ 되어 있었다.

한편 침략 일본군의 장수 小西行長은 정발에게 투항을 권유하였다. 정발이 항복을 거부하자 이튿날 적은 예측대로 부산포 동쪽의 우암에서 3분하여 결진하고는 배를 포구 안에 붙여 차례로 상륙하여 부산진성을 6시경부터 공격하였다. 일본군은 쉽게 성문이 돌파되지 않자, 조선군의 후방인 북쪽의 방어가 허술한 사실을 알고 북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마침내 적군이 북쪽 성벽을 넘어 성으로 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부산진첨사 정발은 군민을 지휘하여 弓矢를 난사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분전하였다. 순식간에 성 안에서는 조선과 일본군 사이에 장렬한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군세 향전도 일본군의 대군 앞에 차례로 많은 희생자를 내었으며, 마침내 첨사 정발이 탄환에 맞아 전사하자²⁶⁾ 조선군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성은 함락되었다.

24) 『經國大典』 권4, 兵典, 外官職條.

25) 김강식, 앞의 책, 2018, 77쪽.

임진왜란 때 부산진성전투는 4월 14일 아침에 시작되어 반나절 정도 지속되다 함락되었다.²⁷⁾ 부산진성의 구체적인 전투 시각과 상황에 대해서는 침략국 일본 측의 기록에 자세하다.

4월 13일의 卯時에 배를 대고 즉각 성을 공격하였다. 성 안에서는 우리를 기다렸다가 활과 화전을 쏘았다. 2시간 가량 세상도 어두워지고 컴컴해졌다. 적은 빨리도 제자리를 떠서 집 틈이나 마루 아래에 숨고, 숨지 못한 자들은 동쪽 문에 몰려 모두 합장을 하고 꿇어 앉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마노우 마노우라고 하는 것은 살려달라는 말로 들렸다.²⁸⁾

이처럼 부산진성전투는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군이 일본군을 맞이하여 치른 첫 전투였다. 그리고 적군의 수와 무기 면에서 비교하면 현저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군·관·민이 나라의 관문을 지키기 위해 결사적으로 항전했다는 점에서 길이 남을 만한 전투였다고 평가되었다.²⁹⁾ 그렇지만 일본군은 상륙 당일에 부산포진을 점령함으로써 조선군의 해안 방어 세력을 제거하고, 조선 침략을 위한 海頭堡를 확보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부산포를 일본 수군의 기지 내지 병참의 기지로서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6) 『亂中雜錄』 권1, 임진년 상, 4월 14일조.

27) 『선조수정실록』에서는 4월 14일 새벽에 시작하여 오랫동안 항전했다고, 『西征日記』에서는 4월 13일 卯刻 포위하여 辰刻 공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8) 『吉野覺書』의 정확한 명칭은 『吉野覺書五左衛門覺書』이다(『續聚書類從』 제20집 하, 378~380쪽).

29) 鄭撥이 黑色戰服을 입고 진두에서 용감하게 싸운 늠름한 기상을 적장들이 ‘귀국의 장수 가운데는 부산의 흑의장군이 가장 두려운 장수였으니, 만일 성이 더욱 견고하고 병력이 더욱 많았더라면 우리가 끝내 함락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한 데서 나왔다(『尤菴集』 권116, 東萊南門碑).

3. 일본군의 병참 기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부산으로 군선을 이용하여 전쟁에 필요한 군사, 군량, 무기를 모두 운반해 들어왔다. 豊臣秀吉은 島津을 복속시킨 1585년 이후부터 九州 전체를 唐入의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島津의 領地를 비롯한 九州 大名들의 토지를 분할하여 자신의 가신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藏入地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조선 침략을 위한 사전 준비였다.³⁰⁾ 이처럼 조선 침략을 위한 군량, 무기, 선박 등은 豊臣秀吉과 각 大名이 각기 준비하였다. 豊臣秀吉이 준비한 것은 직할부대와 직속 가신단 및 공용을 위한 것이었고, 각 大名들은 자신의 군사들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조선으로 출병 전에 豊臣秀吉은 병사와 군량 등의 군수품을 조선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造船 명령을 내렸다.³¹⁾ 領地에 바다를 끼고 있는 大名에게는 배를 징발하였다. 毛利輝元에게는 6段 帆船 90척, 鍋島直茂 60척, 筑紫廣門 5척을 각각 내어 壹岐島와 對馬島에 배치하여 부산까지 渡海船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 일반 大名들에게는 石高 10만석 당 대선 2척을 만드는 비용을 내고, 선박을 운행할 水手(船員)는 연해의 인구 매 100호 당 10인씩을 보내도록 하였다. 선박을 취급하는 상인들에게도 6단 범선 100척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였다.³²⁾

임진왜란 때 일본은 군량조달을 조선에서 직접하는 방법, 일본에서 운송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였다.³³⁾ 일본에서 운송하는 경우 주목되는 것은 瀬戸内海 연안과 九州 북부 지역에서 名護屋로 운반하고,

30) 櫻井克己, 『豊臣政權の朝鮮出兵における兵糧米調達政策とその實態』, 『一橋研究』 9-3, 一橋大學大學院學生會, 1984, 24쪽.

31) 天正 20년 3월 13일 豊臣秀吉朱印狀; 大日本古文書, 『毛利家文書』 885号.

32) 三鬼清一郎, 『朝鮮役における兵糧米調達について』, 『名古屋大學文學部30周年記念論文集』, 名古屋大學文學部, 1978, 609쪽.

33) 中野等, 『豊臣政權の對外侵略と太閤檢知』, 校倉書房, 1996.

대신 京都와 大阪에서 이곳에 보충해 준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名護屋에 모아진 군량은 조선으로 운반되었다. 또 일본의 각 지역에서 博多와 名護屋로 미곡이 집결되고, 壹岐와 對馬島를 거쳐 부산으로 운송되었다. 군량의 운송을 위해서는 조선으로 간 배를 돌아오게 하고, 大名들에게서 배를 직접 징발하였다.

豊臣秀吉은 조선으로 가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비용으로 쌀의 지급량을 달리하고, 또 선장과 뱃사공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생계비까지 고려하여 충분히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1591년(선조 24)에 豊臣秀吉은 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과 은화를 주조하였다. 금화는 꽃무늬를 넣어 花降金이라 하고, 은화는 石見鑛山에서 생산한 은으로 주조하여 石見銀이라 불렀다.³⁴⁾ 직접적으로 豊臣秀吉은 1591년 8월 조선 출병 방침을 확정하면서 명나라를 침공할 군량미로 九州와 四國에 있는 藏入米 가운데서 6개월분 30만석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³⁵⁾ 12월 豊臣秀吉은 九州와 四國의 大名들에게 藏入米를 海路를 이용하여 名護屋으로 수송하도록 하였다.

1592년 4월 조선으로 출병하는 각 大名은 각자 마련한 수송 선단으로 군사와 물자를 운송하여 조선에 상륙시켰다.³⁶⁾ 이때 일본에서 조선으로 보내는 군사와 물자의 수송은 豊臣秀吉과 참전하는 大名들이 별도의 수송체계를 조직하여 보내었다. 조선에 건너간 각 大名의 수송선은 豊臣政權의 船奉行의 지휘 아래에 들어가게 했다. 九州의 名護屋과 조선 사이의 운행은 名護屋-壹岐, 壹岐-對馬島, 대마도-부산의 3구간으로 나누어 연결식으로 운행되도록 하였다. 첫 구간의 운행은 加藤嘉明 등 3인, 둘째 구간은 九鬼嘉隆 등 3인, 세 번째 구간은 森高政 등 3인이 담당

34) 日本陸軍省・日本陸軍糧秣本廠 編, 『日本兵食史』 下, 1934, 363쪽.

35) 三鬼清一郎, 앞의 논문, 1978, 613쪽. 中野等, 『文祿・慶長の朝鮮役』, 吉川弘文館, 2008, 79쪽.

36) 中野等, 위의 책, 2008, 75쪽.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名護屋과 부산 사이의 海路는 일본군의 작전과 병참에서 대동맥이 되게 하여 선박이 계속 왕복하도록 하였다. 부산에서의 창고와 보급 책임자는 淺野長政이었다.

이처럼 일본은 전쟁의 준비단계에서는 군량 등 군수물자를 해로를 통하여 운송하여 조달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서해와 남해를 이용한 군량 운송이 李舜臣에게 차단되었고, 육로를 이용한 운송도 의병 등의 활약으로 방해를 받았다. 이에 일본군의 군량 운송 전략은 큰 차질을 일으켰다.

먼저 임진왜란 때 豊臣秀吉의 명령에 따라 조선 침략에 앞서 名護屋에 모여 군진을 정비한 大名의 명단과 동원된 인원은 豊臣秀吉이 각 領地の 규모에 따라 군사와 군량을 할당하여 총 동원체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즉 豊臣秀吉은 太合檢地를 통해서 토지면적과 양곡 수확고를 조사하고, 양곡 총량을 병력 동원 기준으로 삼아 1만석 당 병력 동원 한도를 250명으로 정하였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들어온 일본의 군사수는 9개 부대의 육군과 수군을 합쳐 20만여 명이였다.³⁷⁾ 脇坂安治, 九鬼嘉隆, 加藤嘉明, 藤堂高虎 등의 수군장은 별도로 수군 9,200명을 편성하고 있었다.³⁸⁾ 임진왜란 첫 전투였던 부산진성전투에는 小西行長가 이끈 조선 침략 선봉군인 제1군 18,700명이 700여 척의 병선으로 부산포를 침략해 점령하였다.³⁹⁾ 임진왜란 초기에 부산이 일본군의 교두보이자 운송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출전명령을 받은 여러 大名들은 임진년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군대에게 필요한 군량은 자기의 領地에서 수송하여 갔다.⁴⁰⁾ 그러나 이때도 일본군의 식량 보급이 여의치 못했다. 이런 사정

37) 대만 삼군대학 편저, 『중국역대전쟁사』, 중신출판사, 2013, 388쪽.

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전란사』, 1987, 32쪽.

39) 『大日本古文書』 毛利家文書 3, “豊臣秀吉朱印狀 高麗へ罷渡人數事”.

40) 中野等, 앞의 책, 130쪽.

은 비변사가 都元帥 權慄이 要汝文이라는 降倭를 올려 보냈는데, 그의 供招 내용에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도 임진왜란 시기 부산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나이는 30세이고 博多州에 사는데 沈安頓吾의 군졸로 임진년에 바다를 건너 이곳으로 나와서 부산에 머물러 있다가 3년 후에 본토로 돌아갔다. 금년 1월경에 다시 나와 부산포에 머물고 있었다. 활 쏘는 법을 대충 알고 있고 砲 쏘는 법도 알고 있다. 행군할 때는 깃발을 드는 前導가 되었다. 지난달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조선 사람이 와서 ‘조선에서는 항왜를 후하게 대우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투항한 것이다.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고 동생만 3명이 있는데, 하나는 부산에 있고 둘은 일본에 있다. 沈安頓吾가 거느리고 있는 군병의 숫자는 원래 3만여 명이었고 군량은 10개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저의 소관이 아니므로 그 숫자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현재 부산에 남아 있는 남녀 조선인의 숫자는 각각 2,000여 명이고, 식량은 대개 인원수를 계산해 총괄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實數는 알 수 없다. 처음 이곳으로 나올 때는 大船 30여 척에 각기 군량 80~90석씩 싣고 나왔고, 그 이후에는 간혹 운반해 오기도 하고, 조선 지방에서 노략질하여 먹기도 하였다. 조선 사람에게는 모두 腰牌를 지급하여 陣營을 출입하게 하고 있는데, 요패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즉시 죽인다. 현재 부산의 두 곳에 성을 수축하고 있는데, 군졸을 役事시킬 때는 하루에 세 끼니를 먹고 있다.⁴¹⁾

그리고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군의 점령 형태에서도 부산의 병참 기지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군이 처음에 국경에 침범할 때에 크게 위세를 떠벌리고 척후병을 곳곳에 나누어 보내 조선 군사로 하여금

41) 『선조실록』 권100, 31년 5월 5일.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깊은 산골까지 수색한 이후에 각처의 작은 진을 철수하고, 부산으로부터 한성에 이르기까지 다만 한 길에 巨鎭을 벌여 놓았다. 그러나 사방으로 흩어져 죽이고 약탈하는 데 군사가 부족하므로, 경상도에서 점거한 것이 좌도에는 부산·동래 등 10 고을 이고, 우도에는 웅천·김해 등 12 고을이었다고⁴²⁾ 한다. 이처럼 일본군은 부산에서 한성까지 점선점령을 통해서 군량 운송로를 확보하고 있었다.

Ⅲ. 부산포해전의 전개

한산도에서 패전의 소식을 접한 豐臣秀吉은 7월 14일 수군 장수 脇坂安治를 질책하고, 거제도에 축성하여 수군의 九鬼嘉隆, 加藤嘉明 등과 함께 수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⁴³⁾ 이처럼 일본 수군은 한산도 패전 이후 조선 수군과의 전쟁을 피하고 해안의 포구에서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수세에 놓였다.⁴⁴⁾ 반면에 이순신은 한산도해전에서 돌아온 후 다가울 전투를 위해 1,000여 석의 군량을 확보하면서 전투에 대비하고 있었다.⁴⁵⁾ 이처럼 부산포해전 이전에 이미 일본 수군이 거제도 등 연해안에 집중하여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전체의 전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본의 주둔 거점인 부산포를 공격하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였다.⁴⁶⁾

전라수군이 한산대첩에서 일본 수군의 대군을 섬멸하자, 남은 적의

42) 『亂中雜錄』 二, 임진년 하, 25년 10월 10일.

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7, 137쪽.

44) 정진술, 『한산도해전연구』,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군사연구실, 1993, 186쪽.

45) 『李忠武公全書』 상, 권2, 「移劃軍糧狀」.

46) 김강식, 앞의 논문, 2006, 600쪽.

주력 수군은 부산포에 집결하고 있었다.⁴⁷⁾ 이때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명나라의 참전과 의병의 활약으로 일본군의 활동이 주춤한 상황에서 곡창 전라도를 침공하기 위해서 진주성을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일본군이 진주를 칠 경우, 조선군이 부산의 방비가 허술할 것이라고 여겨서 일본의 보루를 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⁴⁸⁾ 더욱이 豊臣秀吉의 명령과 진주성 공략을 준비하면서 일본군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산의 일본군의 주력은 1만 명 정도의 육군과 8,000여 명의 수군, 그리고 500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서 주로 해상보급만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때 일본군은 부산진성을 크게 보수하고, 민간 집 300여 호에도 土壁을 높이 쌓아서 나누어 기거하고 있었다.⁴⁹⁾

한편 이순신의 수군은 8월 26일 남은 수군을 중심으로 全羅右水使 李億祺의 군과 합류, 여수 앞바다에서 전라좌우 수군의 연합함대를 구축하였다.⁵⁰⁾ 편성된 함선 수는 판옥선 74척, 挾船 92척으로 전체 166척이었다.⁵¹⁾ 이때 경상우도순찰사 金睟로부터 내륙으로 쳐 올라갔던 적군들이 포획한 물건들을 가지고 낙동강을 통해 도망가려고 한다는 通牒이 전달되었다.⁵²⁾ 이 공문을 받고 이순신은 일본군의 해상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8월 24일 부산 방면으로 출동하기로 결정하였다.⁵³⁾

『李忠武公全書』 『釜山破倭兵狀』에서 부산포해전 이전의 이동 경로와 주요 전과를 살펴보면,⁵⁴⁾ 8월 24일 우수사 李億祺와 함께 이순신의 수

4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 1987. 이형석, 『임진전란사』 상중하, 신현실사, 1976.

48) 『毛利秀元記』 권3.

49) 『이충무공전서』상, 권2, 『釜山破倭兵狀啓』.

50) 김강식, 앞의 논문, 2006, 601쪽.

51) 이순신, 『임진장초』 만력 20년 9월 17일자 계본.

52) 『이충무공전서』상, 권2, 『釜山破倭兵狀啓』.

53) 부산포 전투상황은 『이충무공전서』상, 권2, 『釜山破倭兵狀啓』 및 기타 문헌을 참고하였다. 그렇지만 이 기록들은 이순신의 전라좌우수군에 관한 것이 주가 되고 있어 전라우수군과 경상우수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군이 여수를 떠나서 남해의 관음포에 이르렀다. 8월 25일 사랑 앞바다에서 경상우수사 元均을 만났다. 이순신과 원군은 작전을 상의하고 당포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 8월 26일 건내량 앞바다에 나아가서 전라좌수사 李億祺, 순천부사 權俊 등과 함께 작전을 협의하였다. 이 날 저녁 角呼寺 앞바다에 정박하였다. 8월 27일 이순신이 칠천도에 이르자 웅천현감 李宗仁이 와서 왜의 머리 35급을 베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다시 전라우수사 이억기와 작전을 협의한 후 함대를 거느리고 밤을 이용하여 안골포로 나아가 부근의 제포 뒤 바다 院浦에서 밤을 지냈다. 8월 28일 원포에서 이순신은 陸戰에 참전했던 體探人으로부터 고성·진해·창원 병영 등지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24일과 25일에 모두 도망하였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 보고에 접한 이순신은 이른 아침 함대를 거느리고 행동을 개시하여 수색작전을 펼치면서 양산강과 김해 등지로 향하였다.

그때 마침 창원 九谷浦에서 전복잡이를 하던 鮑作 丁末石이 적에게 포로되었다가 탈출해 와서 김해강에 정박해 있던 적이 물운대 밖으로 도망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이순신은 대부분의 전함을 가덕도 북쪽 서편에 엄폐시키고, 李純信과 魚泳潭으로 하여금 가덕도 외양에 잠복하게 한 후 探望船으로 하여금 양산 등지의 왜선을 정찰토록 하였다. 종일 적의 사정을 살폈으나 별다른 일이 없었다.⁵⁵⁾ 이에 따라 일단 天城 선창으로 함대를 집결시켜 밤을 새웠다.⁵⁶⁾

54) 『李忠武公全書』상, 권2, 狀啓, 釜山破倭兵狀. 한편 국립해양박물관 위음(민속원, 2017), 『忠愍公啓草』에는 全羅左道水軍節度使李謹啓爲焚滅事로 시작하여 萬曆二十年九月初十日 節度使臣李로 되어 있는데, 부산포해전 때 탈취한 일본군 물품 목록이 빠져 있다.

55) 일본군은 한성에서 철수하면서 진주성 공략을 위해 병력은 김해, 물자는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여 부산으로 운반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을 초기에 조선에서는 일본군의 철수로 이해하여 이순신의 연합함대에 정보가 전달됨으로써 부산포해전 초기의 작전에 다소 차질을 빚었다고 보아진다(『난중일기』 임진년 8월 24일~28일, 『이충무공전서』상, 권2, 『釜山破倭兵狀啓』).

8월 29일에 천성을 출발한 조선 연합수군은 날이 밝을 무렵 남아 있는 적이 출현한다는 양산강과 김해강 하구 앞바다에서 大船과 小船 6척에 나누어 탄 적 30여 명이 조선 수군을 보자 배를 버리고 육지로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이에 경상우수군의 전함과 좌별도장 李純信의 虞侯 李夢龜 등이 추격하여 작은 배 4척과 큰 배 1척을 불태웠다.⁵⁷⁾ 이러한 전과를 올린 조선 함대는 좌우로 나누어 두 강으로 진격하였지만, 강 입구가 좁아서 板屋船으로는 싸울 수 없었다. 또 날이 어두워져서 연합함대는 가덕도 북방으로 돌아와 밤을 새웠다. 이 날 밤 이순신은 이억기·원균과 함께 밤을 새우면서 부산포의 일본 수군을 공격해 일본군의 해상 활동의 근거지를 무력화시킬 작전을 세웠다.

이순신이 부산포해전을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 다양한 인사들이 합류하였으며, 이들은 여러 활동을 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하였다. 이들을 『亂中日記』 속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亂中日記』 속 부산포해전 이전 이동 경로와 합류 인사⁵⁸⁾

날짜	출발 시간	주둔지	정박 시간	정박지	합류 인사와 주요 활동
24일	오후 4시	여수		노량 뒷바다	조방장 丁傑, 우수사 李億祺, 점심
	자정	노량 뒷바다	새벽	사천 모자량포	
25일	오전 8시	사천 모자량포		삼천포 앞바다	평산포 만호 空狀 바침
		삼천포 앞바다	오후 4시	당포	경상우수사 원균과 대화, 숙박

56) 『壬辰狀草』만력 20년 9월 17일자 계본.

57) 『이충무공전서』상, 권2, 『釜山破倭兵狀啓』.

58) 『李忠武公全書』권5, 亂中日記, 임진 8월. 여기에는 8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빠져 있다.

26일		당포		견내량	전라우수사 이억기와 대화, 순천 부사 權俊
			저녁	각호사 앞바다	숙박
27일		각호사 앞바다		거제 칠내도	경상우수사 원균과 의논, 웅천현 감李宗仁과 대화(왜의 수급 35개 벤 사실 보고)
			저물녘	제포 서원포	서풍으로 마음 산란, 꿈자리 어지러움
28일		제포 서원포			꿈 생각, 가덕으로 이동

이러한 항해 이후 이순신의 연합함대가 부산포 일원에서 수행했던 부산포해전의 본격적인 전투는 1592년 9월 1일 조선 수군이 가덕 북방을 출발하여 부산포로 향하면서 시작되었다. 부산해역에 접어들고난 아침 8시경 물운대를 지나자 바람이 일어 간신히 함대를 정비하여 花樽龜尾에 이르렀다.⁵⁹⁾ 여기서 일본군의 대선 5척, 대대포에서 8척, 서평포에서 9척을 쳐부수었다. 절영도에 이르러서는 대선 2척이 기슭에 줄지어 정박해 있었는데, 3도 水使 휘하의 여러 장수와 助防將 丁傑 등이 합심하여 적의 배를 부수고, 배에 실린 일본군의 군량과 戰具를 배에 실은 채 격파해 버렸다.⁶⁰⁾ 조선군의 함대에 기세가 꺾인 일본군은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산 쪽으로 도망해 버려서 모두 살해하지는 못했다. 다시 조선 수군은 절영도 안팎을 뒤졌지만, 일본 선박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조선 수군은 작은 探望船을 부산 앞바다로 파견해 수색했는데, 얼마 후 부산진성 동쪽 산기슭에서 3군으로 나누어 진을 치고 있던 일본군의 함대 500여 척 가운데 선봉 4척이 草梁項에서 마주 나오고 있다

59) 김강식, 앞의 논문, 2006, 603쪽.

60) 『壬辰狀草』만력 20년 9월 17일자 계본.

는 정보를 입수하였다.⁶¹⁾ 곧 이순신은 李億祺와 이 일을 협의하고는 여러 장수에게 조선 수군의 위세를 가지고서 지금 만일 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간다면, 적은 반드시 조선 수군을 멸시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하여 군사의 사기를 고양시키면서 결전 의지를 표방하였다.

이에 조선 수군은 독전기를 날리고 북을 치면서 부산포의 선창으로 돌진하였다. 우부장 녹도만호 鄭運, 귀선돌격장 군관 李彦良, 前部將 방담첨사 李純信, 중위장 순천부사 權俊, 좌부장 樂安郡守 申浩, 그리고 전라우수군과 경상우수군의 부대들이 맨 먼저 돌진해 들어가 적의 선봉선 4척을 격파하였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적병들이 헤엄쳐 육지로 도망하였다. 뒤에 있던 조선의 함선은 이때를 이용하여 長蛇陣으로 돌진하였다.⁶²⁾

이때 일본 수군들은 부산진성 동쪽 한 산에서 5리쯤 되는 언덕에서 3군으로 나누어 진을 치고 있었는데,⁶³⁾ 적 함선의 수는 대·중·소를 합하여 470여 척이나 되었다. 이곳의 일본 선박은 조선 함대의 위세에 놀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조선 함대들이 곧장 쳐들어가자 배 안, 성 안, 산 위, 굴속에 있던 일본군은 총과 활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6군데로 나누어 진을 치고 내려다보면서 탄환과 화살을 퍼부었다. 당시 일본군이 片箭을 쏘고, 큰 鐵丸을 쏘기도 하였는데, 크기는 木瓜만 하였다. 또 水磨石을 던졌는데, 크기가 주먹덩이만 하였다.

이처럼 부산포해전 때 일본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부산포해전의 본격적인 싸움은 9월 1일의 조선 수군의 이동항로를 고려하면 해가 질 무렵이었다.⁶⁴⁾ 그러나 적군 속에 附逆者도 섞여 있었다. 이 전투에서 조선이 노획한 물품 중에는 長箭 9개, 地字·玄字銃筒 각 2門, 낫 1개,

61) 『壬辰狀草』만력 20년 9월 17일자 계본.

62) 『壬辰狀草』만력 20년 9월 17일자 계본.

63) 片野次雄, 『李舜臣과 秀吉』新光社, 1986, 182~184쪽.

64) 安邦俊, 『隱峰全書』권7, 釜山記事.

大砲口 1門 등도 있었는데, 그것은 적들이 조선의 것을 노획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조선 수군들은 더욱 분발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해 들어가 天字銃筒 地字銃筒 등으로 將軍箭 皮翎箭 長片箭, 彈丸 등을 쏘면서 종일토록 접전하였다. 이때 우부장인 녹도만호 鄭運은 최선봉에서 적의 함선을 부수었는데, 산 위에서 쏜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다.⁶⁵⁾ 이에 이순신은 좌별도장 尹思恭을 假將으로 삼아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

승전을 거듭한 조선 수군은 계속 적을 토벌하려 하였으나 중지하였다. 그 이유는 같이 적은 騎兵을 가진 반면 조선 수군은 軍馬를 갖지 못하였다. 또 병력의 숫자도 열세였으며, 장기간에 걸친 항해에다 종일토록 항전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지쳐서 육지에서 전투를 계속하기가 어려웠으며, 날도 저물었기 때문이었다고⁶⁶⁾ 한다.

이에 이순신은 일본군의 육지 소굴과 남은 적선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한 채, 다음에 파손된 전함을 수리하고 군량을 넉넉히 준비하여 경상도 감사의 육군과 수륙 양면으로 진격하여 섬멸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아쉬움을 남긴 채 9월 1일 가덕도로 되돌아와 밤을 새웠다. 2일 아침 이순신은 연합함대를 해체하고, 이순신의 전라좌수군은 여수 본영으로 돌아갔으며,⁶⁷⁾ 전라우수군도 돌아갔다. 이로서 부산포해전은 막을 내렸다.

65) 정운은 용맹한 장수였는데, 1592년 9월 1일 부산포해전에 참전하면서 물운대를 지날 때 물운대의 雲과 이름자의 運이 음이 같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하였다(『鄭忠壯公實記』 권1과 권2; 『宣祖中興誌』 권2; 『東國新續三綱行實忠臣圖』 권1, 本國判官鄭運). 안타깝게 정운이 부산포해전에서 전사하자 이후 전공으로 折衝將軍으로 超授하였는데, 正祖 22년에 忠壯이라 시호를 받았다(『隱峰全書』 권8, 湖南義錄).

66) 『이충무공전서』 권2, 狀啓, 釜山破倭兵狀.

67) 『임진장초』 만력 20년 9월 17일자 계본.

IV. 부산포해전의 결과

임진왜란 해전사에서 부산포해전이 차지하는 위상은 대단하다고 평가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부산포해전의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 측면을 보완·언급하고자 한다.

부산포해전은 육지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을 바다 위에서 대항하면서 일본 선박을 격파하였으므로 지세 상으로 적은 육지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극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3道の 장병은 勇戰을 거듭하여 부산포 안에서 적선 100여 척을 격파하였다. 또 당시 화살과 포에 사살된 적의 수도 많았다. 그렇지만 부산포해전에서는 적을 사살하는데 주력하기보다는 적선을 부수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토굴 속으로 들어가기에 바빴으며, 적들의 다른 배들은 부산포 해안 기슭에 정박한 채 겁을 먹고서 바다로 나오지도 못하였다.

먼저 부산포해전에 동원된 군선의 규모이다. 부산포해전 참전의 양국 지휘관을 살펴보면 대부분 조선군의 경우 대부분 이순신의 전라좌수군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다. 부산포해전에 동원된 조선과 일본의 군함수를 비교하면, 부산포해전에 투입된 조선의 함대는 일본 수군에 비해 1/3밖에 안 되었다. 그러나 원군의 경상우수군의 함대 등을 포함하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협선은 전투선이 아니어서 커다란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일본은 전함(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포함시켜 비교하였다. 그렇지만 조선 수군의 연합함대는 참전 규모가 임진왜란 해전사에서 보면 어느 전투보다도 많았다. 부산포해전의 참전한 양국의 군선수는 아래와 같다.

<표 3> 부산포해전 참전 군선수⁶⁸⁾

조선군		일본군	
종류	척수	종류	척수
판옥선	81	전함(대)	24
거북선	약간	전함(중)	470
협선	92	전함(소)	2
합계	173	합계	496

다음으로 부산포해전의 참전부대와 전공이다. 조선군의 경우 연합함대였기 때문에 주력은 이순신의 전라좌수군이 중심이었지만, 전라우수군과 경상우수군도 참전하였다. 때문에 조직상으로도 이억기와 원군의 부대도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 전라우수군과 경상우수군의 지휘관들도 부산포해전에서 활약하였다.⁶⁹⁾

반면에 일본은 해상 병력 8,000명, 육상 병력 10,000명이었다.⁷⁰⁾ 일본의 수군은 일본 본국으로부터 보강된 紀伊 수군과 備前 수군이 각 4,000명이었다. 일본의 육군은 성주에서 남하한 羽柴秀勝의 8,000명과 伊達・井上・淺野의 추가군사 2,000명으로 전체 10,000명이었다. 수적으로 보면 조선 수군이 1/4~1/5 정도의 열세였다. 부산포해전 참전한 양국의 지휘부와 군사수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이순신을 중심으로 한 연합함대였다.

68) 『壬辰狀草』만력 20년 9월 17일자 계본. 판옥선 81척은 원군의 경상우수군을 합친 숫자이다(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람미디어, 2004, 106쪽). 일본 수군의 전선은 부산포 일원에서 마주친 전선을 포함시켰다. 한편 『毛利秀元記』권3에서는 조선 수군을 대선 708척이라고 하였다. 일본군의 상황 판단이 조선 수군의 공격에 당황하여 흐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69) 『白湖全書』권23, 事實, 統制使李忠武公遺事.

70) 이형석, 앞의 책, 1976, 508쪽.

<표 4> 부산포해전 참전 양국 지휘체제와 군사수⁷¹⁾

조선군			일본군	
전투편제	이름	현직	이름	군사수
전라좌수사	이순신		毛利輝元	
전라우수사	이억기		藤堂高虎	2,000
경상우수사	원균		脇坂安治	1,500
中衛將	權俊	순천부사	淺野左京大夫	
左部將	申浩	낙안군수	堀内氏善	850
右部將	鄭運	녹도만호	桑山一晴	1,000
龜船突擊將	李彦良	군관	九鬼嘉隆	1,500
助防將	丁傑		淺野彈正少弼	
前部將	李純信	방답첨사	伊達正宗	
中部將	魚永潭	광양현감	杉谷氏宗	650
左別部將	尹思恭	전 만호	加藤嘉明	750
後部將	裴興立	홍양현감	井上伯耆守	
遊擊將	黃廷祿	발포만호	來島通之, 通總	700
捍後將	金大福	전 봉사	管達長	250
捍後將	李汝恬	사랑권관	堀内安房	
斥候將	金仁英	여도권관	합계	9,200
左別將	李夢龜	군관		

다음으로 부산포해전의 전공 문제이다. 부산포해전에서 활약한 조선 수군 지휘부 가운데 李夢龜, 李汝恬, 趙玗, 鄭運, 宋汝棕의 전공이 『李忠武公全書』 권2, 狀啓, 釜山破倭兵狀에 개별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71) 日本 參謀本部 編, 『日本戰史』朝鮮役 上~下, 1923, 82쪽.

<표 5> 부산포해전 시기의 조선군 장수의 개별 전공⁷²⁾

이름	직책	활동과 전공
李夢龜	營虞候	왜의 수급 1
李汝恬	사랑 權管	왜인 포로(吳道同)
趙玘	순천 監牧官	자력으로 배 준비, 종과 목자만 거느리고 자원 출전, 왜인 사살과 물건 노획
鄭運	녹도 만호	세 번 선봉 돌진, 부산 점전 때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 적의 탄환으로 전사
宋汝綜	낙안군수 待變軍官	4차례 참전, 앞서 돌진, 왜 사살, 전공 세움

이처럼 부산포해전에서 활약한 개별 장수의 활약상에 대해 이순신은 전공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狀啓를 올려서 부산포해전에서 전사상자와 가족들에게 恤典 등을 해 주도록 요청하고, 전리품은 상품으로 나누어 주어 군사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위에 적은 사람들은 부산 점전에서 矢石을 무릅쓰고 결사적으로 진격하다가 혹은 전사하고, 혹은 부상이었으므로 시체를 배에 싣고 돌아가 장사지내게 하였는데, 그들의 처자들은 홀전에 따라 시행하소서. 중상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약문을 주어 충분히 구호하도록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였으며, 왜의 물품 중에 쌀·포목·의복 등은 군사들에게 상품으로 나누어 주고, 왜적의 병기 등의 물품은 아울러서 아래에 列記합니다.⁷³⁾

한편 부산포해전에 사용된 무기와 탈취품이다.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片箭, 鐵丸, 水磨石이 있다. 이 밖에 조선에서 노획한 물품 長箭, 地字·玄字銃筒, 大砲口 등도 있었다. 반면에 조선 수군은 天字銃筒·地

72) 『李忠武公全書』 권2, 狀啓, 釜山破倭兵狀.

73) 『李忠武公全書』 권2, 狀啓, 釜山破倭兵狀.

字銃筒, 將軍箭・皮翎箭・長片箭, 彈丸 등을 사용하였다.⁷⁴⁾ 부산포해전 때 탈취한 일본군 물품은 다음과 같다.

<표 6> 부산포해전에서 탈취한 일본군 물품⁷⁵⁾

구분	물품 목록과 수량	
	무기류	기타
일본군	倭甲 5部(金甲 1), 兜鍪 3, 長槍 2, 銃筒 4, 鉛鐵 230斤, 竹鏃箭 12部 5介, 長箭 5부 23개, 無鏃箭 2부 11개	大碇 4, 騎鞍 1部, 於赤 1부, 超床 1개, 倭各色衣 7, 婆羅 2隻, 爐 1, 鼎 1, 櫃 1
조선	장전 9개, 鎌子 1柄, 地字銃筒 2병, 玄字銃筒 2병, 大碗口 1	鳳皮 1令

마지막으로 부산포해전에서 입은 조선 수군의 피해이다. 녹도만호鄭運의 전사를 포함하여 戰死 6명, 부상 25명이었다.⁷⁶⁾ 그런데 부산포해전에서 조선군의 인적 피해도 상당하였다는 점은 부산포해전의 불리함과 전투의 상황을 말해준다. 아울러 참전했던 경상우수군과 전라우수

74) 김강식, 앞의 논문, 2006, 604쪽.

75) 『李忠武公全書』 권2, 狀啓, 釜山破倭兵狀.

76) 『壬辰狀草』 萬曆 20년 9월 17일자 계본; 『隱峯全書』 권7, 記事, 釜山記事, “湖南左水使李舜臣 與賊戰于釜山 鹿島萬戶鄭運死之(中略) 八月舜臣因元均報 與諸將及億祺十八日又進 次于彌助項 十九日次于唐浦 二十日次于溫乃 二十七日進天城 攻要時羅 時羅以書言于舜臣曰 중략) 九月初一日 直向釜山未至 遇賊船二艘於沒雲臺下 追之 賊棄船而走 運令軍人投火賊船 南海縣令奇孝謹 貪其貨寶 料水滅之 鹿島人投火不止 遂爲孝謹所打傷 運憤甚 大聲叱孝謹曰 孝謹奇孝謹 汝何不并力討賊 而反擊殺倭之人乎 汝於倭賊 誠孝至矣 孝謹大慙 卽回船以退 我軍遂進釜山 獨運及助防將丁傑先至 而日已夕矣 傑謂運曰 日既暮 賊兵又盛 不若觀勢以明日進戰 運勃然曰 助防亦爲是言耶 吾當與賊不俱生 何待明日 俄而舜臣繼至 運令諸軍曰 賊有一大船 放銃筒最猛 我當先破其船 遂進力戰 中丸洞胸而死 軍人奔告于舜臣 舜臣大驚 遣軍官視之果然 舜臣仰天歎曰 已矣已矣 國家失右臂矣 命鹿島船載送運屍 遂退師還鎮 故上舍朱曄 嘗遇吳姓人於興陽地 吳自亂初從舟師 終始有功者 以諺譯爲日記詳悉 曄依其錄 作一文字 來示余 余卽刪其煩蔓 補其闕略 名之曰釜山記事 使後人知國家之恢復 由於湖南之保全 湖南之保全 由於舜臣之水戰 舜臣之水戰 皆出於鹿島萬戶鄭運 首事嘗試之力也(下略)”.

군의 피해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일본군의 인명 피해도 상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군은 부상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거나 토굴 속으로 피하여 달아난 숫자가 많았다고⁷⁷⁾ 한다. 부산포해전 때 입은 조선군 피해 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 7> 부산포해전 시기 전라좌수군의 피해 상황⁷⁸⁾

구분	소속 전선	이름	직책	소속군
戰死	방답1선	金千回	射夫	순천
	呂島船	朴石山	分軍色	홍양
	蛇島3선	金開文	格軍, 수군	능선
	營扞後船	守培(奴)	격군, 土兵	본영
	영한후선	金叔連	사공, 鮑作	본영
負傷	(臣所)騎船	張開世(寺奴)	격군, 토병	본영
		金億富, 金開同	수군, 포작	본영
	영한후선	李宗	수군	본영
		金江斗, 朴成世	격군, 토병	본영
	營龜船	鄭仁伊, 朴彥必	토병	본영
	呂島船	鄭世仁	토병	
		金希全	사부	
	蛇島1船	金鵬萬	軍官	
		安元世	사공, 토병, 水軍	
		崔翰宗	격군, 토병, 수군	
		裴植宗	수군	광주
	興陽1船	北介	격군, 포작	홍양
	營虞候船	仇銀千	사부, 鎭撫	본영
	방답1선	春好(奴), 輔灘(奴)	格括軍	방답
	防踏鎭龜船	春世(奴), 延石(奴)	격팔군	방답
		李加福	수군	보성
	寶城船	無上, 欣孫		보성
輕傷	(臣所)騎船	金永見	토병, 수군	본영
		今同	포작	본영
	방답귀선	朴世奉(新選)	사부	순천

77) 片野次雄, 『李舜臣과 秀吉』, 新光社, 1986, 187쪽.

78) 『李忠武公全書』 권2, 狀啓, 釜山破倭兵狀.

이처럼 부산포해전에 참전했던 전라좌수군의 피해도 상당하였다. 여기에 부산포해전에 참전했던 전라우수군과 경상우수군의 피해를 더하면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면모는 부산포해전의 불리함을 말해준다.

V. 부산포해전의 의의

부산포해전이 임진왜란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다양한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의의이다. 첫째, 조선군의 함대 수가 일본군에 비해서 적었으며, 군사들도 오랜 항해로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싸워 이긴 임진왜란 해전사에서 몇 안 되는 승첩 중의 하나였다고⁷⁹⁾ 평가된다. 부산포해전은 부산포의 적진 속으로 조선군이 직접 뛰어들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본군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특히 부산포해전은 전술적으로 일본군을 사살하기보다는 일본 전선을 깨뜨리는데 주력하여 적선 100여 척을 부순 대첩이었다. 때문에 부산포해전 이후로 일본의 수군은 조선 수군에 위축되어 본국과의 보급로 확보에만 주력하는 형편이었다.

부산포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승리는 일본군의 수군 본거지를 직접 공격한 점에서 다른 해전과는 차별성을 갖는 전투였다. 이후 일본 수군은 일본 본국과 부산 사이의 주보급로 확보에만 전력하면서 수세에 몰려서 부산포의 기지 보호에만 급급하였다. 부산포해전 이후 오랫동안 남해에서는 해전이 거의 없었다. 이는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 곧 이순신 함대와의 해전을 회피하였기 때문이었다.⁸⁰⁾ 이후 일본군은 해안에

79) 김강식, 앞의 논문, 2006, 608~609쪽.

80) 『李忠武公全書』상, 권2, 釜山破倭兵狀啓.

축성한 후 육상에서만 조선 수군을 상대하려 하였는데, 이는 육군화 된 수군이라고 할 수 있다.⁸¹⁾ 이런 현상은 조선 수군의 입장에서 보면 전투 해역의 축소를 초래하여서 이후 일본 수군에 대한 대응이 한결 용이해진 계기가 되었다.⁸²⁾

둘째, 부산포해전은 전라좌우 수군과 경상우수군이 연합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장거리를 이동하였으면서도 승리를 거둔 전투였다는⁸³⁾ 데 의의가 있다. 부산포해전의 승리 요인은 일차적으로 李舜臣의 뛰어난 지휘력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전라우수사 이억기와 경상우수사 원균과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휘하에는 鄭運 등과 같은 軍事에 노련하면서도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고, 군의 사기도 충만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조선 연합함대의 상하가 혼연일체가 되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면서 일사불란하게 항전해 거둔 승리였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는 조선 수군의 연합 함대가 부산포해전 이전에 수행하였던 연합 훈련을 통하여 준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조선 수군은 부산포해전 20일 전에 전라좌·우 수군은 합류하여 연합 훈련을 거듭하면서 합동 공격과 전술을 충분히 익혔다.⁸⁴⁾ 실제 부산포해전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長蛇陣을 구사하여 좁은 항구 내에 정박해 있던 일본군에게 일시에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⁸⁵⁾

다음으로 부산포해전의 역사적 의의와 관련된 평가 문제인데, 부산포해전은 임진왜란 시기의 전쟁 흐름을 바꾼 해전으로서 의미가 상당하다. 첫째, 부산포해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미 부산포해전은 임진왜란 4대 海戰으로 평가되고 있다.⁸⁶⁾ 이순신이 임진왜란 시

81) 김종기, 「부산포해전」,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군사연구실, 1993, 148~151쪽.

82) 『난중일기』계사년 2월 10일, 12일 등.

83) 임원빈, 「병법의 관점에서 본 부산포해전」, 『이순신연구논총』25, 2016, 94~97쪽.

84) 『壬辰狀草』만력 20년 9월 17일자 계본.

85) 장학근, 『조선시대해양방위사』, 창미사, 1988, 226쪽.

86) 임원빈, 위의 논문, 2016, 94~97쪽.

기에 수행했던 전투 가운데 3대 해전은 한산대첩,⁸⁷⁾ 명량대첩,⁸⁸⁾ 노량대첩으로⁸⁹⁾ 기록되어 나타난다. 해전의 승리 크기에 따라서 捷과 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산포해전에 대해서는 東岡 崔是翁이⁹⁰⁾ 정운의 행장을 쓰면서 부산대첩이라고⁹¹⁾ 하였다.

이순신 자신도 부산포해전을 중요 해전으로 평가하였다. 즉 이순신이 여러 장수들과 함께 부산에 있는 적을 진격하려는 뜻으로 의논하였는데, 이는 장차 그 근본을 경복시켜서 서쪽에 있는 적들을 요동시키려는 의도였다. 이에 8월에 다시 군대를 내보내서 天城의 적을 공격하였다. 9월에 부산에 이르러 적들의 배 100여 척을 불태우고 돌아왔다고⁹²⁾ 기록하고 있다.

<표 8> 임진왜란 4대 해전 참전 전선수 비교⁹³⁾

해전명	조선 참전 전선	일본 참전 선박수	일본 선박 격침수
한산해전	58척	73척	59척
부산해전	81척	470여 척	100여 척
명량해전	13척	133척	31척
노량해전	60여 척	300여 척	200여 척

87) 『선조실록』 권30, 25년 9월 병자.

88) 『李忠武公全書』 권10, 附錄 2, 鳴梁大捷碑(大提學 李敏叙).

89) 『李忠武公全書』 권10, 附錄 2, 東嶺小礮陰記(領府事 南九萬).

90) 崔是翁(1646~1730)의 자는 漢臣, 호는 東岡이며, 임실(현재 남원시) 출신이다. 『東岡先生遺稿』는 1858년에 간행된 최시옹의 유고 시문집인데, 徐有薰의 序가 있다.

91) 『東岡先生遺稿』 권7, 行狀, 贈兵曹參判鄭公行狀. “古所罕聞 卽馳啓行朝 大褒其忘身殉國之奇勳大節 其略曰 鄭某恪勤職事 兼有膽略 激發義氣 爲國忘身 三度戰捷 每次先登 及釜山大捷時 亦輕身忘死 先突賊巢 終日力戰 賊不敢動 當其回帆 中丸致斃 臣之所恃者只此 而今其死矣 豈可使凜氣英靈”

92) 『白湖全書』 권23, 事實, 統制使李忠武公遺事.

93) 임진왜란 4대 해전의 규모에 대해서는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이순신연구논총』 25, 2016 참조. 부산포해전의 경우 조선 참전 전선수에 경상우수군의 전선을 포함할 경우 다소 늘어날 수 있다. 또 노량해전에는 명나라 수군 400여 척도 참전하였음을 고려해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임진왜란 3대 해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산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과 비교해도 부산포해전은 大捷으로 충분하게 평가할 수 있다. 임진왜란 3대 해전으로 파괴된 군선수를 비교하면, 부산포해전에서 타격해 파선시킨 전선수는 상당히 큰 규모였다.

둘째,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부산포를 병참기지를 구축하였는데, 부산포해전은 이를 타격한 전투였다. 이 전투를 통해서 일본군의 운송력을 약화시키고, 일본이 강화회담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일본군은 본국과의 연결을 위해서 많은 군사를 부산포 일원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위해서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군은 부산 해안에 倭城을 축조하여 확고한 병참기지를 확보하여 사용하고자 했다. 일본군은 甌山倭城을 중심기지로 삼아 울산의 鶴城에서부터 순천의 倭僑城까지 전체 30여 개의 왜성을 축조하여 군사를 주둔시켰다. 왜성에 머물고 있던 일본군의 수효는 동래에 1천, 부산포에 1만, 좌수영에 300명 등이었다.⁹⁴⁾ 즉 일본은 築城을 하여 조선에서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⁹⁵⁾ 부산포의 釜山倭城은⁹⁶⁾ 일본 기록에 釜山浦城으로 불렸다.⁹⁷⁾ 부산왜성은 1592년(선조 25) 4월 14일 鄭麟僉使와 함께 본성인 부산진성이 함락된 후 倭將 毛利輝元和 毛利秀元 부자가 쌓았다. 조선 측에서는 凡川 甌山城,⁹⁸⁾ 小早川城으로 불렸다.

94) 『선조실록』 권49, 27년 3월 병신.

95) 『선조실록』 권60, 28년 2월 계유.

96) 지금까지 두 왜성을 별개로 보았다. 하지만 왜성의 경우 입지상 산상의 內城部와 평지의 강가나 해안가에 위치한 外城部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산왜성의 경우 증산왜성이 내성부에 해당되며, 자성대왜성이 외성부에 해당한다(나동욱, 「부산왜성에 대한 고찰」, 『博物館研究論叢』, 2013, 90쪽). 때문에 부산왜성이란 증산왜성과 자성대왜성을 합쳐서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두 성을 합친 개념으로 부산왜성이라 사용하였다.

97) 倭城址研究會, 『倭城』, 1976, 28·29쪽.

98) 『東萊府誌』 권18, 城郭條.

임진왜란 때 부산 지역은 일본의 名護屋, 壹岐, 對馬島와 일본군의 최전방을 잇는 보급 및 연락의 병참기지였다. 다시 말해 부산은 일본군 병력의 충원, 물자의 보급과 관리, 豊臣秀吉의 본진인 名護屋城과의 연결 등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교두보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증산왜성은 임진왜란 때 축성된 18개 성 가운데 가장 먼저 축조되었다. 임진왜란 개전 초기의 증산왜성은 일본군이 거처할 건물과 간단한 방어시설을 갖춘 정도였지만,⁹⁹⁾ 1592년 9월 1일 부산포를 공격한 李舜臣의 장계에 보면 이미 關白인 豊臣秀吉이 머물기 위해 만든 집으로 天守閣이 완성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은 이순신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부산진성 안에 있던 관사는 모두 철거되고, 흙을 쌓아 집을 만들어 새집처럼 이룬 것이 백여 호에 이르며, 성 밖의 동서쪽 산기슭에 담과 지붕이 연달아 있는 집이 300여 호이다. 이것은 왜인들이 스스로 지은 집인데, 그 가운데에서 큰집은 층층의 축대와 회계 바른 벽이 마치 절과 같았다. 그 소행을 따져보면 극히 통분합니다.¹⁰⁰⁾

이처럼 부산포에는 일본군이 산상의 증산왜성과 해안의 자성대왜성을 翼狀으로 연결함으로써¹⁰¹⁾ 광대한 평탄지를 확보하여 전략상의 방어시설로서, 또 병참기지로서의 기능을 계속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부산포의 역할을 알고서 이순신은 부산포해전을 선제적으로 감행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99) 『加藤嘉明公譜』, 文祿 元年 四月.

100) 『壬辰狀草』, 萬曆 20年 9月 17일 啓.

101) 登石垣이라고도 한다. 용어상으로는 ‘경사지에 축조된 석축 성벽’으로 풀이되지만, 왜성에 있어 주로 산정에 있는 주곽의 아래쪽으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직 또는 능선을 따라 성벽을 두른 일종의 外郭을 말한다(나동욱, 『남해안지역 왜성의 登石垣에 관한 연구』, 『靑村論叢』 9, 2008, 세종문화사).

VI. 맺음말

7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임진왜란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전체 위상 가운데서 임진왜란 시기의 부산포해전의 전황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4월 14일 부산포는 일본군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관할 경상좌수사 朴泓과 인근의 경상우수사 元均의 도망으로 전선이 와해되었기 때문이었다. 부산진성에서 부산진첩사 정발이 분전하였지만, 일본군은 부산포를 함락하여 교두보로 삼아 임진왜란 초기 전황을 원만하게 주도해 나갈 수 있었다. 이후 부산포는 일본군의 주둔 기지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일본 수군의 많은 전선과 군사가 주둔하면서 운송 기지 역할을 하였다.

부산포해전은 임진왜란 시기에 부산포가 일본군의 교두보와 병참 기지 역할을 할 때, 일본군의 근거지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투였다. 때문에 조선 수군의 연합 함대는 바깥 해양이 아니라 부산 포구 안의 적진으로 뛰어들어 전투를 수행하는 위험을 감수하였으며, 전술로도 一字로 펼치는 長蛇陣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전술은 조선 수군이 연합함대를 구축하여 부산포에 도착하기 전에 꾸준한 연습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부산포해전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두 수군이 연합하여 전함과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둔 전투였다. 이 해전은 임진왜란 시기의 전세를 바꾸게 할 만큼 획기적인 전투였다고 평가된다. 부산포해전의 패배 이후 일본 수군은 서해로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동시에 육군의 진격도 어렵게 되었다. 또 수군의 패배로 일본 본국과의 교통과 보급도 지장을 받아서 일본군은 반도에서 고립되는 처지가 되었다. 이에 일본도 강화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반면 조선 측에서는 일본군의 군량 공급로와 보급기지를 직접 공략

하여 대첩을 거둠으로써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부산포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지형상의 불리함이나 전선과 군사수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합함대를 구축하고, 연합 훈련을 통해서 익혔던 유용한 전술을 구사하였다. 또 이순신은 직접 장거리 이동, 육지에 주둔한 일본군과의 전투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부산포해전에서는 선제공격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산포해전은 임진왜란 시기의 여러 해전 중에서 일본의 전선을 많이 깨트린 大捷 중의 하나로 평가되며, 일본 수군의 기동력을 약화시켜 임진전쟁사 전체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준 전투의 승리였다. 이에 조선 수군의 방어 영역은 일본군이 주둔하는 부산 해안으로만 축소되어 한동안 조선군이 일본군에 대해서 안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부산포해전은 임진왜란 4대 해전으로 평가되며, 전투의 규모와 영향 면에서 부산포대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진다.

| 참고문헌 |

1. 자료

『李忠武公全書』, 『壬辰狀草』, 『忠愍公啓草』, 『宣祖實錄』, 『懲毖錄』, 『征蠻錄』, 『亂中雜錄』, 『大日本古文書』, 기타 문집류.

2. 저서 및 논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2, 양반사회의 모순과 대외항쟁, 1981.

_____, 『한국사』13, 양반사회의 변화, 1978.

_____, 『한국사』29, 조선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1995.

_____, 『한국사론』22, 壬辰倭亂의 再照明, 1998.

김강식, 「壬辰倭亂中の 軍糧 調達策과 影響」, 『文化傳統論集』4, 1996.

_____, 「임진왜란 시기의 부산포해전과 의미」, 『역사와 세계』 30, 2006.

- _____, 「壬辰倭亂 前後 釜山地域의 社會變化」, 『향도부산』 22, 2006.
- _____, 「조선 전기 부산지역의 지방행정과 관방」, 『향도부산』 21, 2005.
- _____, 『문화교섭으로 본 임진왜란』, 선인, 2014.
- _____, 『조선시대 해항도시 부산의 모습』, 선인, 2018.
- 金錫禧, 「壬辰倭亂과 釜山 抗戰」, 『향도부산』 9, 1992.
- 김종기, 「부산포해전」,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군사연구실, 1993.
- 노영구, 「《征韓偉略》에 나타난 일본의 임진왜란 海戰 이해」, 『이순신연구논총』 22, 2014.
- 陸軍本部,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육군본부 군제사연구실, 1968.
-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 이종봉, 「임진왜란시기 일본의 병량미 보급과 그 정책」, 『한국민족문화』 27, 2006.
- 李炯錫, 『壬辰倭亂史』 (上·中·下),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6.
- 임원빈, 「병법의 관점에서 본 부산포 해전」, 『이순신연구논총』 25, 2016.
- 丁仲煥, 「일본기록에서 본 임진왜란」, 『향도부산』 3, 1981.
- _____, 「壬辰倭亂時의 釜山地區戰鬪」, 『軍史』 2, 1981.
- 정진술 외, 『다시보는 한국해양사』, 신서원, 2008.
- 정진술, 「부산포해전」, 『해양과 이슈』, 전망, 2004.
- 제장명, 「정유재란 초기 조선의 수군정책과 부산근해 해전」, 『향도부산』 24, 2008.
- 崔永禧, 「壬辰倭亂 첫 戰鬪에 대하여」, 『한국사학논총』 상, 1992.
- 徳富猪一郎,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 民友社, 1921.
- 北島万次,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5.
- 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 海と空社, 1942.
- 佐藤和夫, 『海と水軍の日本史』 上~下, 原書房, 1995.
- 中里紀元, 『秀吉の朝鮮侵攻と民衆・文祿の役 上・下』, 文獻出版, 1993.
- 池内宏, 『文祿慶長の役』, 吉川弘文館, 1914.
- 參謀本部 編, 『日本戰史』 朝鮮役 上~下, 1923.
- 青柳南冥 編著, 『朝鮮史家の記せる豊太閤朝鮮役』, 京城新聞社出版部, 1934.
- 片野次雄, 『李舜臣と秀吉・文祿・慶長の海戰』, 誠文堂新光社, 1996.

| Abstract |

Position of the Busan-port and Naval Battle during Early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Kim, Kang-Sik

Busan-port(釜山浦), which had the battle of Busanjinseong(釜山鎭城) and the naval battle of Busan-port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was the main headquarters of the JwaSooyoung(左水營) of Gyeongsang-do even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For Japan, which caused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Busan-port was important as a transportation hub for securing a bridgehead in Joseon and contacting Japan. First, on April 14, 1592, Japan attacked and occupied Busanjin, the first battle of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After that, the Japanese army gradually advanced to Hansung after landing at Busan-port, but as the front expanded, it actively controlled the Busan-port as a liaison base and logistics hub with its home country.

The naval battle of Busan-port, which took place on September 1, 1592, was a necessary battle to weaken the base of the Japanese army when the area of Busan-port was a bridgehead and a logistical base for the Japanese arm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Therefore, Yi Sun-shin's combined fleet of Joseon's Sooyoung took the risk of jumping directly into the enemy camp inside the port and carrying out the battle. The naval battle of Busan-port was such a landmark victory that the two naval forces of Gyeongsang and Jeolla combined to win a major victory that the war was fought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After the loss of the naval battle of Busan-port, the Japanese military became unable to make inroads

into the West Sea, while at the same time making it difficult for the army to advance. As Japan became isolated at the southern tip of the Korean Peninsula, it was forced to stay away from the peace talks.

In Joseon,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military could gain a foothold for recovery by targeting supply and supply areas of the armed forces. The naval battle of Busan-port was one of many naval battl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and it greatly affected the flow of the entire history of the war by weakening the mobility of the Japanese navy. As a result, the naval battle of Busan-port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four major naval battles of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and was also regarded as the a sweeping victory of Busan-port for later generations. Because of the victory in the naval battle of Busan-port, Joseon was able to win the munitions war.

Keyword: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Busan-port, battle of Busanjinseong, naval battle of Busan-port, munitions War